

데스크 시각



홍행기 경제부장

빛과 그림자가 떨어질 수 없듯이 승리의 영광 뒷길에는 반드시 좌절과 패배의 쓰라림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된 골드러시(gold rush)는 이곳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발견된 모든 금의 합법적 소유자이자 한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업가였던 요한 아우구스트 수터(Johann August Suter)의 몰락을 함께 불러왔다.

1840년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멕시코 캘리포니아주의 변방에 위치한 보잘 것 없는 어촌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터는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 보고 10년 간의 독점운영권을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새크라멘토에 노이 헬베티엔(Neu-Helvetien)이라

보난자(bonanza)

는 이민자 마을을 건설한 그는 개간한 땅에서 키운 곡식과 과일, 가축을 인근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일궜다.

게다가 1846년 벌어진 전쟁에서 미국에 패배한 멕시코가 캘리포니아를 미국에 넘겨 주고, 미국은 이 땅의 소유자에게 계속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수터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됐다.

가장 부유한 남자에서 거지로

하지만, 차변 기우는 것이 인생이듯 1848년 1월 수터가 제재소를 지으려던 새크라멘토 콜로마 지역에서 황금이 발견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동안 수터의 농장에서 일해왔던 모든 인부들이 금을 찾아 떠나버려 농장이 황폐해진다. 금을 캐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수터의 땅을 제멋대로 파헤치고 거머하는 바람에 수터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인 수터는 1855년 3월, 법정으로부터 캘리포니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 재산을 위협받게 된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샌프란시스코 전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수터의 세 아들도 폭도에

게 목숨을 잃으면서 그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구차한 거지생활을 하던 수터는 20년 후 의회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숨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구상에서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사용한 ‘대박’이라는 단어에 대해 청와대가 bonanza(노다지)를 공식 표현으로 채택했다. 대중적인 호소가 필요할 때는 jackpot(도박·복권 등에서의 거액의 상금, 대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두 표현 중 어느 하나로 일원화해 사용한다기보다는 bonanza를 우선 순위에 두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통일 이후 준비 선행해야

외국 언론 기고나 공식문서에서는 bonanza를, 대중적인 입팩트가 필요할 때에는 jackpot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보난자’는 골드러시가 정점에 달했던 1849년 당시 미국 서부로 몰려들었던 포터나이너스(49ers, Forty-miners)들이 사용했던 용어다. 금이나 은 등 귀금속이 묻혀있는 광맥을 가리켰던 말이니 우리말로 대박, 노다지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자 노다지’라는 인식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미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듯하다. 통일만 되면 갑질의 인구와 천연자원 등을 기반 삼아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골드러시가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합법적 소유자 수터는 황금을 찾아 몰려든 전세계의 약탈자들에게 자신의 땅을 빼앗겼다. 황금이 갑작스럽게 발견된 것도 이유지만, 그 같은 상황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터가 법정에서 캘리포니아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에도 폭도들의 거부로 통일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통일을 꺼리는 주변국의 은밀한 거부와 압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잠망빌 낙관론에 들뜨지 말고, 통일과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 redplane@kwangju.co.kr

社說

박 정부 2년차 국민·호남민이 바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2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기관 부문을 개혁하고 원칙이 선 시장경제를 구현하면서 사회안정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문제와 관련,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국민적 통일 논의의 수렴과 함께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혀 정치·경제계를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혁신을 제시하고, 통일 문제는 어떤 식이든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제 혁신과 통일 준비가 성과를 내려면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부터 극복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지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박 정부의 지난 1년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족’과 ‘나홀로 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팽배해 있다. 국민대통합과 대타협은 찾기 어렵고, 호남인사 차별과 예산 확대는 이명박 못지않게 더 심각하다. 국민통합은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한 이뤄질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통일 등 어떤 분야에 서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 지역·계층 간의 갈등 해소, 합리적인 인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 정부 2년차 국민과 호남사람들의 바람이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탄축만 걸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그릇된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기념곡으로 불려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절차를 서두르기는 커녕, 부정적 여론 수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24일 국회 정부위원회에 ‘5·18기념곡 지정 추진사항’을 보고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만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올 1월까지 관련 부처와 보훈단체, 정책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대부분 기념곡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라고 밝혀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훈처는 행진곡이 추모행사 등에서 울려 퍼진 상징적 노래라는 의견 외에는 전반적으로 타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즉 특정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른 노래이며, 엄숙해야 할 정부 기념식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부르고, 북한의 통일 노래 100곡집에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작사자 등의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다 국가공용차 단체의 반대, 기념곡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국민분열 발생 등을 꼽았다. 이는 보훈처가 기념곡으로 삼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33년간 추모곡으로 널리 불려온, 5·18의 연장 선상에 있는 송고한 노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기념곡 지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들었지만 대부분 기념곡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라고 밝혀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훈처의 공수는 정부의 눈치보기 내지 그 의중을 헤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오죽했으면 광주시가 오는 4월까지 기념곡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라면 이를 하루속히 수용해야 한다.

無 等 鼓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는 제갈량이 교묘하게 설치해 둔 팔진도(八陣圖)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오나라 장군 육손(陸遜)의 이야기가 나온다.

패주하는 유비를 추격하던 육손은 어북포 일대에서 팔구십 개의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이상히 여겨 수십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무더기를 둘러보던 육손이 되돌아 나오려는 순간, 광풍이 불고 모래와 돌이 천지에 휘날렸다. 피석은 검처럼 우뚝 솟고, 모래와 흙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성난 파도가 천군만마처럼 습격해 왔다. 살아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마다 육손은 제갈량의 장인 황승언의 인도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대국의 장수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줬던 팔진도는 기문둔갑(奇門遁甲)의 일종이다. 중국 청(淸)나라 때에 지어진 책과사전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따르면, 황제 현원이 치우천왕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꿈에 천신으로부터 비결을 얻었고, 이를 문자로 정리한 것이 바로 기문둔갑이다.

후세에 제갈량이 병법에 활용해 성과를 거뒀으며, 신라에서도 김유신의 고손(증손자의 아들)이 당나라에서 둔갑

임성법을 터득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온다.

지금에야 시주나 점복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래의 기문둔갑은 ‘방위술’이라고 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각 방위의 기운을 다스림으로써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방법인 것이다.

뜬소문이지만, 지난해 말 신사육을 완공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장실 위치가 좋지 않다’는 무속인의 의견을 받

아들어 입주를 늦춘 것도 기본적으로는 기문둔갑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수권으로 시작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린

이들이 조상의 묘를 옮기고 가꾸는 것 또한 ‘방위를 다스려 목적한 바를 얻으려’는 기문둔갑에 다를 아니다.

가진 자들이 쌓아올린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기문둔갑이라도 의지하려는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 귀어도 손가락 틈새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돈과 권력 역시 언젠가는 흔적없이 사라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혹시 나’하며 사무실을 바꾸고 이장을 하는 소동을 보며 기문둔갑을 ‘발명해낸’ 사람들이 웃고 있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통일이 되면 그것은 대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기대도 쫓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자신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지 못한 게 느닷없이 북한이 통일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해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는 식이 아니냐”는 비판의 의견도 많다. 마치 로또 복권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주기적이건 간헐적이건 로또 복권을 사고, 매주 숫자를 맞춰보며 대박을 꿈꾼다. 소수의 행운아들을 빼곤 평생을 사면서 기대해도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인 통일을 이처럼 대박이나 기대하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다.

기고

처음 교직(敎職)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음부터’라는 말처럼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교육의 희망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즐거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교사를 천직(天職)이라고 한다. 교사는 하늘이 내려준 천직이기도 하지만 힘든 천직(賤職)이기도 하다. 물론 교직사회에서 관리자도 승진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사의 본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면서까지 승진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첫째, 성실하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돌보는 일이다. 선생님들은 학생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알맞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정성스런 원정(圓丁)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등교해서 학생들의 출결과 건강을 살피고, 수업시간에 정성을 다해 가르치며,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슴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학생들

이 하교한 교실을 돌아보고 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과 많이 다르다. 가정경제로 부모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의·식·주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채 혼자 버려진 아이들은 학교 공부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교사들이 할 일이다. 이런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다.

셋째, 전공교과에 대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먼저지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 학생들한테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생님은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이 있는 교사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을 가르치는 일 외에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공부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공부가 조금 부족해도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체력을 관리해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과지도만 하느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동료 교사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다. 교직에 임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 직장을 받고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이 영위되며 공교육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교복·교과서 싸게 살 수 있는 은행 만들면 어떨까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특히 아내바다 게시판을 들여다 보면 학생들의 학교나 문제집, 교복 등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리플도 많이 달린다. 특히 요

즘은 곧 졸업식을 앞두고 있어 이미 사용했던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 등을 물려주고 받고 싶어 아주 적합한 시기이다. 그냥 집에 두어 보았자 폐기처분하는데 불려하니, 재활용하게 한다면 물자절약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실제로 넘긴 책을 보면 깨끗이 사용해서 새 책이나 다름없으며 이미 입은 교복도 조금만 손질하면 얼마든지 재활용해도 된다.

요즘 교복값도 25만원을 호가해 가계에 지치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런 아내바다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으면 물자절약과 가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복과 교과서, 참고

서 전시코너 등을 마련해 수시로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벼룩시장을 열거나 교복 및 교과서 등을 서로 주고받고 싸게 구입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설해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도형·광산구 승정 1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00-66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